

경상북도 내 시·군 보훈예우수당

(2022년 기준)

경상북도 시·군	수당금액
청송군	월 13만
영천시, 문경시, 군위군, 영양군, 성주군, 칠곡군, 예천군, 울릉군	월 10만
경주시, 김천시, 봉화군	월 8만
안동시, 영주시, 상주시, 경산시, 의성군, 영덕군, 고령군, 울진군	월 7만
<u>구미시</u> , 포항시, 청도군	월 5만

※ 연령제한

- 만 65세 이상(**구미시** 외 11개)
- 연령제한 없음(김천시 외 10개)

※ 유족 및 배우자 수당 지급

- 미지급 : **구미시** 외 4개
- 지 급 : 포항시 외 17개

똑같이 헌신했는데... 도내 시·군 보훈수당 '천차만별'

승인 2022-07-09 08:52



손사라 기자 sarah@kyeonggi.com
기자페이지 >

지자체 “재정여건 달라 증액 어려워”

안산시에 사는 김모씨(87)는 6·25 참전 국가유공자다. 전쟁에서 크게 다쳐 총알 파편 조각이 아직도 오른쪽 어깨에 남아있지만, 이로 인한 불편함보다 그를 아프게 하는 것은 지역마다 다른 보훈수당이다.

그는 “안산시에서 7만원의 참전명예수당만 받고 있다. 그런데 용인특례시는 참전과 보훈명예수당의 중복 지원이 가능하다는 말을 들어 너무 속상하다”고 호소했다.

양주시에 거주하는 오모씨(56)도 상황은 비슷하다. 군 복무 중 다리를 다쳐 의병 제대한 국가유공자이지만, 양주시가 ‘만 65세 이상’에게만 보훈수당을 지급하는 탓에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

오씨는 “애국의 마음은 같은데 지역이 다르단 이유로 차별 대우를 받는 게 말이 되느냐”고 토로했다.